

비타민 SEA

Winter | Vol. 14

K-해양도시

상흔을 딛고 정상으로, 도약의 해양도시 부산

Special 1

한국해양진흥공사 제3대 사장 안병길 인터뷰

Special 2

2024 KOBC의 빛나는 성과를 소개합니다

ON KOBC

2024년 9기 신입사원 인터뷰

같이 가치海

지역도 지갑도 살리는 상생협약, 혜택받으러 가요

vol.14

Winter 2024
한국해양진흥공사 매거진
www.kobc.or.kr



<비타민 SEA>

필수 영양소 '비타민 C'에 SEA(바다)를 활용한 이름으로, 바다와 해운업에 영양을 보충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계간 소식지(사보)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운기업 지원 정보뿐만 아니라 해운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뉴스, 일반 독자들을 위한 즐거움과 유익함을 주는 읽을거리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발행처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4층~7층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T. 051-795-1500



<비타민 SEA> 소식지는 QR코드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obc.or.kr



K-해양도시
상흔을 딛고 정상으로, 도약의 해양도시 부산



Special 1
한국해양진흥공사 KOBIC, 이제 전 세계로 도약합니다
- 한국해양진흥공사 제3대 사장 안병길



Special 2
2024 KOBIC의 빛나는 성과를 소개합니다



바다로 잇는 NEWS
SEA THE FUTURE



ON KOBIC
해양강국 향한 해진공호에, 첫발을 내딛다
- 2024년 9기 신입사원



같이 가치海
지역도 지갑도 살리는 상생협약,
혜택받으러 가요



KOBIC NEWS
이모저모 해진공

36
독자 참여코너
해진공 낱말퀴즈

K-해양도시,

부^釜 산^山

개항과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 성장해 온 부산은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고 있다.

개항 150년, 역사의 흔적을 보듬고
대한민국 해양산업을 선도할 미래로 내달리는 도시,
역동하는 부산을 만나보자.



상흔을 딛고 정상으로, 도약의 해양도시 부산

해양도시, 항구도시, 영화도시... 부산은 다양한 정체성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 역사의 변곡점마다 큰 역할을 도맡아온 부산은 과거를 아우르고 미래를 이끄는 해양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해 다양한 변화에 나서고 있다.

“ 항만을 중심으로 변화한 부산의 도시 아이덴티티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부산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국제 관문 도시다. 삼한 시대부터 일본과 통하는 해상교통로 역할을 해 왔으며, 조선 시대에 이르러 1407년 부산포를 개항하여 본격적으로 왜인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당시 조선은 내이포(乃而浦)와 염포(鹽浦)를 묶어 삼포(三浦)를 무역항으로 사용했다. 삼포 각각에 왜인이 거주할 수 있는 왜관을 설치했으나 삼포왜란(三浦倭亂) 등 왜인들의 횡포가 이어져 폐쇄되었다. 부산포의 왜관만 남아 오랜 기간 자리를 옮겨가며 개폐를 반복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무역항은 1976년 2월에 맺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이른바 강화도 조약에 따라 탄생했다. 그해 10월 부산항이 개항되었고 원산항이 1890년, 인천항이 1893년에 차례로 개항하기 전까지, 부산항은 유일한 근대 개항장으로 무역 거점 역할을 했다. 개항 후 왜관은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¹⁾로 바뀌었고, 1877년 용두산을 중심으로 약 11만 평이었던 구역이 1905년에는 약 540만 평으로 확대됐다. 거주 일본인 역시 1876년 2월 개항 당시 82명에서 1890년에는 4,344명으로 15년 만에 53배 증가했다. 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 관청과 영사관, 병원, 우체국, 은행, 학교, 상점 등 근대시설과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시가지가 형성됐고, 부산으로 스며든 일본 문화가 국내로 퍼지기 시작했다. 일제는 부산을 대한제국 수탈 거점으로 삼고, 정치·행정 중심지를 동래에서 부산항 부근으로 바꾸었다. 부산을 약탈품 수송로로 활용하기 위해, 1912년부터 1943년까지 북항 1~4부두와 중앙부두를 개발했고 부산항은 차차 근대 항구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부산은 해외 문물이 조선으로 들어올 때 처음 발 딛는 어귀이자, 여러 문화가 서로 섞이며 한국식으로 탄생하는 융합의 도시였다. 부산은 1884년 9월 14일, 기독교 전파를 위해 조선을 찾은 세 선교사가 처음 도착한 곳이고, 1970~1980년대 외국 영화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도시였다. 부산에서 흥행 여부가 곧 전국의 흥행 정도를 미루어 보는 기준이 되었다. 일본의 가라오케는 부산에서 최초의 한국식 노래방으로 다시 태어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 과거의 그늘을 벗어나, 산업화로 정상을 향해

부산의 타고난 지리적 이점은 일제 약탈의 중심지로 악용되었지만, 6.25 전쟁 등 국가 위기를 딛고 일어날 단단한 기반이 되기도 했다. 부산은 6.25 전쟁으로 전국에서 대거 몰려든 피란민에게 제2의 고향이 되어주었다. 부산 영도다리는 혼란한 피란길에 헤어진 가족과 재회를 약속한 상징적인 장소였다. 피란도시 부산은 다양한 노래와 문화를 낳았고, 웅기종기 모여 한 평 남짓 살림을 꾸렸던 피란민의 삶은 감천문화마을, 흰여울마을 등 색다른 경관을 자아내는 관광 명소로 남아있다.

부산항은 유엔군과 전 세계에서 오는 구호품과 생필품 등 군사 물자를 하역하고 처리하는 주요항만으로 활약했다. 6.25 전쟁 기간, 22개국에서 온 유엔군 10만 명과 군수물자 200만 톤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다. 부산은 휴전협정을 맺고 1953년 8월 15일, 정부가 서울로 복귀할 때까지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했다. 부산항에는 주로 군수물자와 외국 구호품 등이 오갔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무역액이 증가했다.

1960년대 부산은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전했고, 고무, 모직물, 합성염료, 면 등 공산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다. 1973년, 부산 수출액은 7억 9천만 달러로서 국내 수출액의 24.5%에 이르게 된다. 수출주도형 산업화에 따라 급증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부산항은 하역능력을 강화해야 했다. 이에 제1단계 개발사업(1974~1978)과 제2단계(1979~1983) 개발사업²⁾이 연이어 진행되었고, 제3단계(1985~1991), 제4단계(1991~1997) 개발사업으로 확장을 마친 부산항을 필두로, 부산은 세계 해운산업에 존재감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2) 이 시기에 컨테이너 및 양곡 전용인 제5부두와 석탄·고철·광석 전용 제7부두, 1,000톤급 2선석 총 7척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제8부두가 차례로 준공되었다.

1) 일본인이 거주하며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구역으로 일본 단독의 행정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치외법권을 부여한 지역이다.



세계 2위 환적항 부산항과 해진공, 해운 거점으로 우뚝

세계적 항만으로 성장한 부산항과 종합 해양지원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필두로, 침략과 전쟁의 아픔을 이겨낸 부산은 명실상부 국내 최대 해양 도시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

부산항은 15~18m의 깊은 수심과 동북아시아 허브에 적합한 입지로 최적의 환경은 물론, 287개 정기 컨테이너 노선³⁾을 보유해 연결성이 높다. 특히 아시아,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동서 항로 거점에 위치하여 북미·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 무려 세계 150개국, 500여 개 항만과 연결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이에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항만 연결성 지수'⁴⁾ 세계 4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다.

부산항이 소화하는 물동량은 하루 6만TEU 이상이다. 국내 컨테이너 화물 76.8%, 전국 환적화물 97.4%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처리하는 단연 국내 1위 항만이며, 세계 2위 환적항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세계 경기 침체와 물류공급망 혼란에도 8년 연속 2,000만TEU 이상을 처리하며 글로벌 허브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더불어 2024년에는 역대 최단기간 2,000만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했다. 전년 대비 약 15일 앞당긴 것으로, 2024년 부산항은 전년도 2,315만TEU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에는 세계 2위 환적항만뿐 아니라, 금융과 정책으로 해운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있다. 2018년 7월 5일 설립된, 해운강국 대한민국을 견인할 해양산업 지원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다.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탄생한 공사는 국내 해운기업을 위한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뿐 아니라, IMO 환경규제에 중소선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해운산업 이슈에 적시 대응하며, 대한민국 해운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내 해운산업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부산항 야경



영도정에서 본 부산항



3) 2023년 6월 기준.
4) 항만연결성 지수는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전 세계 900개 항만의 성과를 판별하는 지표로, 선박 입항 횟수, 선박수용 능력, 정기노선과 정기선사의 수, 최대 수용 선박, 연결 항만 수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개항 150년, 부산의 새 역사는 진행 중

2026년, 개항 150주년을 앞둔 부산은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2024년 6월, 운영 중인 북항 컨테이너 부두를 통째로 옮겨가는 대대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장비를 해체하고 다른 자리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항만 이전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항만 이전이 끝나면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였던 자성대부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후 자성대부두는 북항 재개발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1911년 건립되어 6.25 전쟁 때 전쟁 물자를 들여온 북항 제1부두는 청년들을 위한 혁신적인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부산의 근대유산인 북항 1부두의 낡은 창고가 비수도권 대표 글로벌 창업·문화 복합 랜드마크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부산은 스마트·친환경 항만 시대를 여는 데에도 앞장선다. 2024년 4월 5일 개장한 신항 7부두(창원시 진해구)는 국산 항만 장비 기술로 구축된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이다. 선박에서 화물을 내려 이송·장치하는 전 과정을 자동 또는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으며, 장비 대부분을 전기로 가동하여 기존 부두보다 미세먼지 발생량도 적다. 여기에 2024년 10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신항 화물차 전용 수소충전소도 친환경 항만 전환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금융 전문가들이 참고하는 자산 데이터에도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해상운임지수가 활용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그동안 해외에서 발표한 해상운임지수에서 제외되었던 아시아 역내 항로 운임 정보를 적용한 한국형 해상운임지수 KCCI⁵⁾와 KDCI⁶⁾를 개발했고, 2024년 9월, 글로벌 금융 전문 종합매체인 블룸버그 터미널(Bloomberg Terminal)에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고하는 글로벌 운임지수로서 등재되었다. 그리고 2024년 10월, 해상운임지수 KCCI 공식발표가 100회를 맞이하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업계에서 주목하는 지수로 자리매김했다.

부산항은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최초의 길목이자 교역의 관문이었 고 일제 침략의 거점이기도 했으며, 절망 속에서 참전 용사와 구호 물품이 이어지던 희망의 통로이기도 했다. 이제는 글로벌 허브라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부산항. 부산항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5)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부산항을 출발하여 북미, 유럽 등 총 13개 노선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 지수로 한·중, 한·일, 한·동남아 등 아시아 역내 항로 운임 정보를 제공한다.
6) KOBC Drybulk Composite Index. 아시아 항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소형선 항로에도 가중치를 부여한 건화물선 지수다.

한국해양진흥공사 KOBC, 이제 전 세계로 도약합시다

- 한국해양진흥공사 제3대 사장 안병길



10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제3대 사장으로 임명된 안병길 사장. 해양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해양산업의 주요 현안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그가 앞으로 글로벌 신해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진공과 함께 할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우연한 인생 길목에서 만난 제2의 고향, 부산

10월 2일,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 제3대 사장으로 안병길 사장이 취임하였다. 안병길 사장은 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부산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려다 우연히 발견한 기자 모집 공고에 지원하였다. 8명을 뽑는 기자 모집 공고에 1,000명이 모여들 정도로 치열했는데, 그의 길이 맞았다. 최종 8인이 되어 부산일보 기자가 되었다. 부산일보에서 32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해양문화연구소 소장을 거쳐 편집국 국장,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주어진 길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또다시 우연한 기회의 문이 열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해진공 제3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어느덧 부산에 온 지 만 44년, 사람 안병길에게 부산과 바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고향이 되었다.

“제가 해진공에 취임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시 해양·항만 관련 일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99.7%가 해운 물류로 이루어집니다. 해운 물류의 중요성이 바로 해진공이 힘써야 하는 이유이며,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두고 함께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KOBC를 워다 보면, '코비씨'와 같이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해진공이 앞으로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국회의원, 시민들에게 가까워 이웃이 되어 우리의 젊은 에너지가 부산 전역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안병길 사장은 해진공 임직원들이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해양수도 부산, 더 나아가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단초를 보았다.

부산 바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산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부산이라고 입을 모은다. 도시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어 기후가 안정적이다. 바다가 주는 개방감은 사람 사이에 포용력을 안겨줘, 어떤 지역 사람이 와도 어우러지기 좋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 항구 도시이다. 그 바탕에 바다를 사랑하고, 해양에 많은 관심을 쏟는 부산 시민들이 있다. 그렇다 보니 부산에 있는 언론사에는 해양수산 전문 부서가 따로 있다. 부산일보 해양연구소는 부산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해양수산부를 만들고, 폐지됐던 해양수산부를 살리고, 해양 관련 공기업·공공기관을 영도로 옮겨 해양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조선기자재, 해양기자재, 조선업과 항만을 발전시키는 데 부산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왔다.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현대상선이 어려움에 부딪치는 상황 속에서 해운업계를 살리기 위해 부산일보 사장으로서 함께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안병길 사장이었다. 또한 그는 전 세계 해양 세력을 한군데 모으기 위해 제1회 세계해양포럼¹⁾을 기획·개최하였으며, 이후 우연히 정치의 길로 접어들어 서구·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었다. 안병길 사장은 당시 우리나라 최대 위판장 부산공동어시장 등 바다와 관련된 업장이 많은 지역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4년 임기 내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을 했다.

“ 농해수위 활동을 하면서 해진공 설립 과정도 지켜보았고, 해진공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지요. 생각해 보면 이전에 다각도로 힘을 보냈던 것이 해진공 사장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해진공의 미래, 종합 해양지원기관

“ 글로벌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하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부산의 해양도시 지수 최고 순위가 11등이고, 보통 17등~20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양도시라면, 해양도시 지수 목표가 최소 10등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안병길 사장은 항구 도시로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관해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 파워로 나누었다. 부산은 이미 하드웨어로서 세계 2위의 환적화물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을 갖추었다. 또한 부산, 울산, 거제에 있는 조선소가 조선 분야 해양기술을 탄탄하게 뒷받침한다.

안병길 사장은 앞으로 다양한 소프트 파워 구축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해양 금융이다. 그는 금융에 더해 보험과 파생상품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해양 정보의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 운임 지수, 중고 선박이나 신조 가격, 선수 가격 등의 해양 정보가 부산으로 모이면 거래가 활발히 발생하여 부산에 국제해운거래소를 만들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세 번째, 디지털 전환이다. 안병길 사장은 해양 분야는 AI 적용이 시작 수준에 불과하기에,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디지털 전환(DX)²⁾을 이루어야 함을 역설했다. 네 번째, 법률 부문 발전이다. 우리나라에는 해사법원이 없어 계약서 작성이나 거래 시 영국 런던 거래소 기준을 따르고 있고, 해외 해사법원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한 외화 유출이 1년에 1,000억이 넘는다. 안병길 사장은 우리나라 해사법원의 중요성을 이미 피력하여 취임 전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제출했으며 설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재다. 부산에는 부산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등이 있어 충분한 인력 풀을 갖추고 있다. 안병길 사장은 글로벌 신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해 금융, 친환경, 정보, 디지털 전환(DX), 글로벌 등 5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해진공의 가까운 미래 역할을 '종합 해양지원기관'으로 제안했다.

1) 세계해양포럼(WOF, World Ocean Forum): 2007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4년 제18회를 맞이했다. 해양·수산 관련 분야 국제기구, 연구기관, 정부 부처, 기업인, 유관 기관 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해양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글로벌 토론의 장이다. 제1회 세계 해양포럼 주제는 '열린 바다, 지구촌 미래로 2007.11.05.~07.3월간 열렸다. 기존 연사로 허버트 뮐러(독일), 빌리드레스 정(미국), 김재현(한국) 등이 참석했다. (출처: 2024WOF, wof.kr)
2) Digital Transformation, DX: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기업으로 기업 조직 문화, 비즈니스 모델 및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고객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 (출처: BIFIZ, 부산경제경제자유구역)



모든 물길은 바다로 향한다

'해불양수(海不讓水)'. 바다는 어떤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뜻이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관용과 포용의 너그러운 자제라는 의미를 담기도 한다. 안병길 사장의 리더십을 설명하기에 더없이 꼭 맞다. 안병길 사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은 해진공의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미화부 직원들이다.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해진공의 사람과 환경을 더 가까이서 알게 되었다.

안병길 사장은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간다. 정치를 할 때도 '현장, 소통, 서민' 세 가지 키워드를 정해 '현장에서 정치' 하고, 소통으로 서민들을 위해 정치하는 것을 목표 삼았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를 나누며 온기를 주고받을 때 비로소 진심이 전달된다.

“ 소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권위 의식을 버리고 앞서 바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편하게 대화의 물꼬를 열어줍니다. 경영도 소통 아니겠습니까? ”

안병길 사장은 대면 소통을 추구하는 편이지만, 시간의 제약과 물리적 한계를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SNS 활동과 해진공 공식 홈페이지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직원은 사장의 생각을, 사장은 직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SNS에 할애한다. 먼저 나를 보이고, 타인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안병길 사장의 관록이 엿보였다.

뚝단배가 흘러가는 대로 물길을 따르다 보면 드넓고 거대한 바다를 만나는 것처럼, 어떤 길을 가더라도 실패한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이라는 안병길 사장. 주어진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와 해진공이 앞으로 함께할 항로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기대된다.

2024 KOBC의 빛나는 성과를 소개합니다

2024년 한 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산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각 부서의 여러 성과를 조명하며, 해양 금융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걸어온 회사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감사실, ESG경영실, 리스크준법실



공사 내부 업무의 균형을 조율하고 외부로 해진공 소식을 전하는 부서가 모였다. 적극행정과 감사를 맡은 감사실, ESG경영과 조직 및 경영평가, 공모제도 등을 추진하는 ESG경영팀, 해진공 소식을 알리고 사회공헌을 진행하는 홍보팀, 윤리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힘쓰는 리스크준법실의 소식을 담았다.



해진공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합니다_감사실

부서명	사업명	시행일
감사실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방안(행사명: 감사인과 차차차)	7.9~
	한국해양진흥공사, 기술보증기금과 감사(監査) 업무 협력 체계 구축	12.20.

감사인과 차차차

-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방안

7월 9일(화)부터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인과 협업부서 만남을 추진하여 사례 발굴 및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월 2개 팀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사전 컨설팅 대상은 실제 현업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다. 이를 통해 '인재채움뱅크 활용을 통한 채용절차 개선(안)' 검토를 완료하였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해진공이 되겠습니다_ESG경영실

부서명	사업명	시행일
ESG 경영팀	해운산업 ESG경영 대응 간담회 개최	03.28.
	제3기 청년이사회 활동 개시	04.04.
	해운산업 ESG경영 가이드북 발간	08.20.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Vision 어워즈, ARC 어워즈 금융 부문에서 금상 수상	09.04.
	한국해양진흥공사 2024 해양산업 ESG경영대상(大賞) 개최	10.31.
	'2024년 제1회 해운선사 ESG경영 교육' 성료	11.18.
	국적선사 ESG등급 획득 지원사업	11.29.
	부산지역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참여	01.10.
	한국해운협회 2024년 정기총회에서 감사패 수상	01.18.
	한국해양진흥공사-국립부경대학교 '해양산업 분야 산학협력' 협약 체결	10.25.
ESG 경영실	설 명절맞이 떡국 떡 나눔 사회공헌 실시	02.07.
	2024년 제1차 사회공헌운영위원회 개최	02.29.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주관 사회공헌대상 수상	03.28.
	오션폴리텍에 해양인재 장학금 전달	05.14.
	대학생 기자단 해지니 5기 발대식 개최	05.31.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9개 기관 BEF 기금 전달	06.02.
	부산해사고등학교에 해양인재 장학금 전달	06.04.
	바다사랑 봉사대 3기 출범식 및 연안정화활동 실시	06.05.
	한국해양진흥공사-기술보증기금 아동복지기관 자원봉사 및 기부금 전달	06.18.
	창립 6주년 맞아 지역사회에 흑서기 대비 물품 전달	07.03.
	한국해양대학교와 '해양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08.20.
	인천해사고등학교에 해양인재 장학금 전달	10.11.
	지역아동 대상 'KOBC와 함께하는 친환경 해양산업 학습교실' 진행	11.04.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9개 공공기관, BEF 스마트팜 9호점 폴란드 수출 기념식 개최	11.29.
	어린이 해양산업 문화학습공간 '해양Dream Dock,1호점 개소	12.02.
	친환경 선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 'Green Sailing' 실시	12.03.
	한국해양진흥공사-수협은행 '안전한 등교를 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안전 바다로)' 첫번째 결실 맺다	12.16.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말 행사 이어가...	12.19.
	국내 두 번째 상생경영 우수기업 인증 획득	12.20.



국적선사 ESG경영 참여 확대
- 국적선사 ESG등급 획득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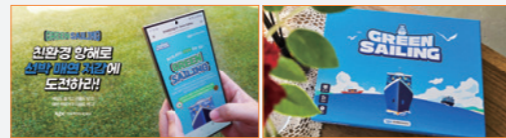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ESG경영이 확산되고 관련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2023년 말 기준, ESG 등급 획득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적선사는 13개 사에 불과하였다. 이에 ESG경영 전환을 위한 기초 단계로 ESG 경영 관련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지원이 필요했다. 공사는 ESG 등급 획득 희망 중소·중견 국적선사 지원 대상으로 전년 3개사에서 올해 5개사로 확대하여 ESG컨설팅 비용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ESG정밀진단', 'ESG컨설팅'을 통한 해운선사 ESG 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국적선사들의 자발적 ESG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ESG 대외 환경 대응력을 강화하였다.



진단컨설팅 보고서

친환경 항해 체험 캠페인
- 대국민 캠페인 'Green Sailing' 실시

친환경 선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보드게임과 온라인게임(https://greensailing-game.com)을 제작하여 공사 최초로 대국민 캠페인(Green Sailing)을 진행하였다. 게임 규칙은 친환경 항해를 목표로, 획득한 친환경 설비를 활용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 가장 적은 매연을 발생시키는 참가자가 우승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설정한 환경 목표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는 것이 해양 산업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 캠페인은 해진공의 친환경 선박과 설비 지원사업을 알리고, 국민에게 친환경 선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현재까지 약 15만회 이상 캠페인을 체험하는 성과를 거둬서 대국민 홍보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 캠페인 기간: 2024.12.2.~2025.1.31.)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투명한 청렴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_리스크준법실**

부서명	사업명	시행일
리스크준법실	윤리경영위원회 정례 회의 개최	01.18.
	한국투명성기구와 '투명성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02.28.
	'24년 제1차 윤리경영추진단 청렴 워크숍 개최	03.26.
	해진공-법무공단, 효율적 법무업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04.26.
	'2024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07.02.
	한국해양진흥공사-포항공과대학교, '해양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07.10.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취득	07.29.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북 발간	11.06.
	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내부통제연구원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1.08.
	한국해양진흥공사, 4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12.09.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 노하우 교환
- 한국투명성기구와 '투명성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월 28일(수)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이하 '투명성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였다. 업무협약으로 투명성기구의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 노하우를 교환하고 이를 공사 제도에 반영하여 공사 업무의 청렴의식을 제고하였다. 특히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의 상호 교류·협력',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보 교환 및 제도 개선', '반부패 평가 지수 향상' 등을 추진하였다. 공사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형 기준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부패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였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재정비를 시행한 바 있다.



다양한 법률 자문 상시 협조 개시
- 해진공-법무공단, 효율적 법무업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4월 26일(금) 정부법무공단과(이하 '법무공단') 효율적 법무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특화 국가기로법이다. 본 업무협약으로 공사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대응 강화, 체계적인 법령해석 및 자문, 정책정보 공유 및 입법 지원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해양금융과 해운사 지원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시적인 협조를 통해 해진공의 서비스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부패 매뉴얼 및 내부심사 체계 마련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취득

7월 29일(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표준 규격이다. 리스크준법실은 윤리경영 주관부서로서 반부패 매뉴얼 마련 및 엄격한 내부심사 체계를 마련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부패방지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본부에는 경영기획팀과 기획예산팀, 디지털정보팀으로 구성된 기획조정실이 있으며, 인사팀과 총무복지팀이 함께있는 인사총무부, 재무팀과 회계팀이 있는 재무회계부가 있다. 기관 운영의 전반적인 기획과 살림을 담당하는 경영기획본부의 소식을 정리했다.



해진공의 정보화 기획 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_기획조정실

부서명	사업명	시행일
경영 기획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	01.03.
	해진공-KMI, 2024년 상반기 정책개발 협력회의 개최	03.18.
기획 예산팀	중장기 경영목표 전략회의 개최	06.17.
디지털 정보팀	민원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03.21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퀴즈대회' 개최	07.11.
	관내 금융기관들과 함께 '부산 사이버보안 슛폼 콘텐츠 공모전' 개최	10.01.

공사의 폭넓은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시행

1월 25일(목)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사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국제 환경규제 대응 및 해운항만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업의 조사·분석', '해운항만물류 친환경·디지털 관련 지원사업'을 공사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해운항만기업이 다수의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국가 해운 항만·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 중장기 경영목표 전략회의 개최

6월 17일(월) 「중장기 경영목표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략회의에 임원 및 부서장들과 실무진들이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친환경 규제 및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공사의 새로운 전략과 국적선사 및 항만물류기업의 필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업을 논의하였다. 회의는 '중장기 경영목표 추진체계 공유', '본부별 추진전략 발표', '중장기 전략 방향성 토론'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국가 해운 항만·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금융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였다.

행정정보 이용 시 민원구비서류 제로화로 간편하게

-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처리 지침 제정 및 시행

공사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점검 대비를 위하여, 공사 담당자의 시스템 이용내역에 대한 이용현황을 매 분기마다 제출받아 모니터링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이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대외적으로는 고객 편의 향상(서류 준비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절감) 및 신속한 업무 처리로 고객만족도가 향상되었고, 대내적으로는 업무 담당자의 업무 생산성 증대 및 신용조사서류 위변조에 대한 리스크 해결로 내부통제 관점에서 큰 효익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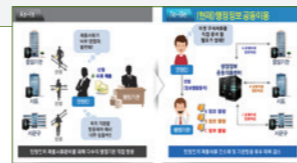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라민원) 서비스

민원인이 각종 민원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인의 정보제공 동의 후 민원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확인하여 민원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제납세증명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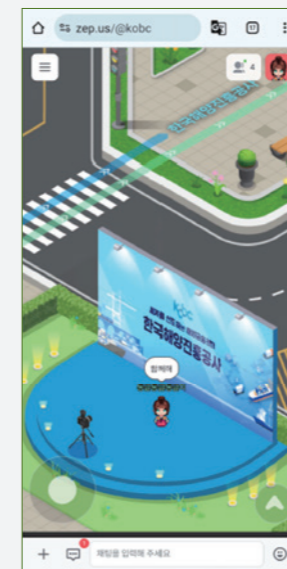
해진공의 원활한 인사와 임직원 복지에 힘쓰겠습니다_인사총무부

부서명	사업명	시행일
인사팀	임기택 IMO명예사무총장 초청 특강 실시	03.19.
	2024년 신입사원 채용정보 제공을 위한 메타버스 설명회 개최	07.18.
	신입사원 임명장 수여	10.31.
총무 복지팀	해양생물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친환경 기념품' 전달식 개최	10.30.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획득	11.26.
	「2024년 여가친화인증」 취득	11.29.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 선정	12.02.

시간·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소통의 장

- 메타버스 온라인 홍보관 신설

해진공 최초 메타버스 온라인 홍보관을 신설하여 시간·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공사의 비전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플랫폼 맵은 부산 본사와 해운대 마린시티, 동백섬 일대를 배경으로 만들었으며, 콘텐츠로 '현직자 합격 후기'와 '버추얼 유튜버가 설명하는 취업 준비 노하우', '직장생활 에피소드', '월간 카드뉴스' 등을 전시하였다. 누적 접속 인원 505명을 기록한 메타버스 온라인 홍보관은 현직자가 공사 가치를 직접 알리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에 대한 지역인재의 접근성 제고 및 정보력 강화 등 청년 인재 취업역량 확보를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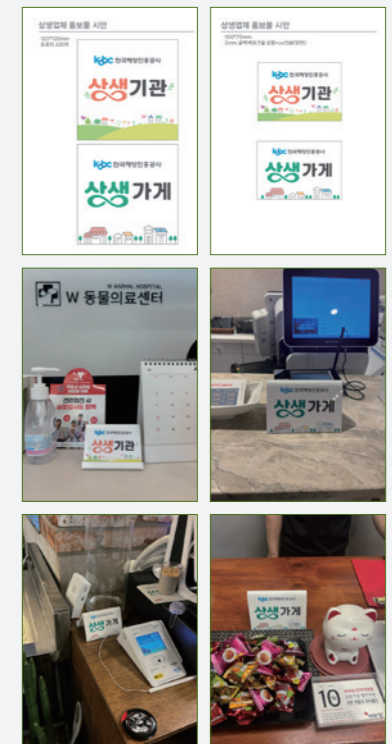


메타버스 온라인 홍보관

지출 없는 다양한 복지 확대

- KOBC 임직원 및 가족 복지 협약

복지 증대에 대한 임직원의 수요와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양하는 정부정책 충족을 위한 비금전적 복지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가치 'KOBC 임직원 및 가족 복지 협약'을 통해 임직원의 복지 수요* 및 업체의 홍보 수요**를 충족하여 추가 지출 없는 다양한 복지를 확대하였다.



*이용 서비스 범위 확대 및 비용 할인

**협약업체의 사내 게시판 홍보 및 협약업체 스티커 제공



해진공의 살림을 바르게 하겠습니다_재무회계부

부서명	사업명	시행일
회계팀	제58회 납세자의 날 우수납세자 표창 수상	03.04.
	기술보증기금과 「금전사고 예방 및 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및 윤리헌장 선포식」 개최	12.23.
재무회계부 재무팀	6억 달러 규모 글로벌 채권발행 성공	04.24.
	싱가포르거래소 채권상장 행사 개최(싱가포르)	05.09.
	4억 달러 규모 포모사 채권 공모 발행 성공	07.10.
	ESG연계 파생금융상품 계약 체결 성공	07.22.
	1억 스위스프랑 규모 공모채권 발행 성공	10.01.
	3억 달러 규모 신디케이트드론 차입 성공	10.30.
	신디케이트드론 체결 기념식 및 글로벌 금융기관 주요임원 간담회 개최	11.18.

자금조달 안정성 개선

- 3억 달러 규모 신디케이트드론 차입 성공

10월 30일(수), 공사는 신디케이트드론을 추진하여 3억 미국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는 공사 최초 사례로 최근 10년간 비은행 공공기관에서 실행되지 못했던 거래였다. 재무팀은 당초 예상 대비 1억 미국 달러를 추가로 조달하였으며, 통상적인 차입기관 규모(5~7개) 대비 많은 차입기관(16개 기관)을 유치하였다. 낮은 금리의 자금조달을 통하여(가산금리 0.67%) 해양 금융에 기여하는 한편, 거래처를 확대하여 공사의 자금조달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업전략본부



사업전략본부에는 사업기획팀과 사업심사팀, 기업구조개선팀으로 구성된 사업전략부와 사업관리팀, 정책지원팀이 발맞추는 사업관리부, 해양정보1, 2팀과 해양디지탈팀으로 이루어진 해양산업정보센터가 있다. 기관 사업과 기업구조, 항만·물류 전반 산업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전략본부의 소식을 모았다.



환경과 기업의 녹색 상생을 꿈꿉니다_사업전략부

부서명	사업명	시행일
사업전략부 사업기획팀	공급망안정화법 상 전문기관 지정 완료 및 관련 추진전략 마련	04.01.
	친환경 전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05.27.
	해양수산부-한국해양진흥공사, 민간선박금융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06.25.
	공사법 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관련 금융지원 방안 마련	11.26.
사업심사팀	투자보증 모의심의 경진대회	12.10.
	보증약관 개정	12.31.
기업구조개선팀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업무협약 체결	05.29.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녹색채권 인수	05.29.

내부 직원 대상 리스크 분석 역량 강화

- 투자보증 모의심의 경진대회

12월 10일(화) 금융사업 차세대 인력을 육성하고, 리스크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자 5급, 6급 주니어 직원을 대상으로 투자보증 모의심의 경진대회를 처음 개최하였다. 참가 직원들은 경진대회에 앞서 기업신용 분석, 사업성 분석 등 심사평가 교육 워크숍에 참가하여 심사평 기법을 학습하고, 선박금융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모의심의 경진대회는 실제 공사 투자보증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팀, 12인의 인원이 참가하여 리스크 분석 역량을 강화하였다.



선화주 곁에서 정책지원 및 사업관리로 힘을 보태겠습니다_사업관리부

CO₂ 17.6만 톤 감축, 소나무 1.5만 그루 심은 효과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대응 지원사업

2월부터 5월까지, 공사는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대응 지원사업 접수를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해양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공사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국적 선사가 친환경·저탄소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선가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올해는 전년도 실적보다도 3척이 늘어난 15척의 저탄소선박 신조 지원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소나무 7.5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인 연간 약 17.6만 톤의 CO₂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

해운항만물류 기업 대상 무료 실무교육 진행

- 해운항만물류 기업 맞춤형 교육 실시

2024년 해운항만물류 기업 맞춤형 교육이 올해 2차례 진행되었다.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제1회 교육이 5월 31일(금), 포스코인터내셔널 및 관련 임직원 37명을 대상으로 벌크선 운송실무, 건화물선 시황 등 특정선종, 화물에 특화된 강의로 진행되었다. 제2회 교육은 8월 20~21일, 천경해운 임직원 46명을 대상으로 천경해운 선하증권 직접 활용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공사는 해운항만물류 분야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무교육 수요를 상시 파악하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정기 선사 6개사,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획득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인증대상 부정기선 확대

5월 21일(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인증대상이 부정기선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 도입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그간 인증대상을 정기선사, 화주기업, 포워더로 국한했으며 28개 사가 인증을 받았다. 올해부터 부정기 선사도 인증 대상에 포함되어 12월 5일(목) 기준, 부정기 선사 3개 사 및 화주 3개 사 등 6개 사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았다. 신청 접수는 수시이며,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안에 인증 여부를 판단한다.



시장 정보 분석과 디지털전환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_해양산업정보센터

부서명	사업명	시행일
해양 산업 정보 센터	파나마-수에즈 운하 통항 차질에 따른 해운시장 영향 집중분석 특집 보고서	01.12.
	컨테이너선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 발간	02.26.
	TPM24 컨퍼런스를 통해 본 '24년 컨테이너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 발간	03.02.
	컨테이너 시장 단기급등 원인 점검 특집 보고서 발간	05.16.
	'24년 상반기 컨테이너선 패널리스트 간담회 개최	05.23.
	2024년 드라이벌커 시장 중간 점검 특집보고서 발간	06.13.
	'24년 2분기 선박 매매시장 동향 및 전망 특집보고서, 발간	07.18.
	'글로벌 선사 친환경 선박 발주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08.09.
	블룸버그 터미널에 공사 운임지수-선가정보 등재	09.02.
	'美 동부 항만 노사협상 등 주요 현안 긴급 분석, 특집 보고서 발간	09.03.
	KCCI 종합지수 예측대회 개최	09.09.
	'2024년 하반기 건화물선 시장 동향, 특집 보고서 발간	10.08.
	KOBC컨테이너선운임지수(KCCI) 공식 발표 100회 맞아	10.14.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에 KOBC 해상운임지수 및 분석 보고서 등재	10.15.
	트럼프2.0시대와 해운산업에 대한 영향 특집보고서 발간	11.08.
	국내 최초 해운시황정보 AI 음성서비스 'KOBC 해운시황 캐스터' 시범운영 개시	11.12.
	2024년 하반기 컨테이너 패널 간담회 성료	12.11.
	'24년 1분기 선박 매매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 발간	04.22.
	블룸버그와 정보교류 업무협력 체결	05.22.
	항만물류보고서 'KOBC Port & Logistics, 발간 개시	06.25.
월간 항만물류보고서 KOBC Port & Logistics 발간	08.26.	
제7회 KOBC 마리티타임 컨퍼런스	10.29.	
제2차 해양산업 디지털 전환 실무협의회 개최	11.28.	
해양 디지털팀	2024년 해양산업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개최	12.12.



세계 유일 부산항발 운임지수, 신뢰성 제고

- KOBC컨테이너선운임지수(KCCI) 공식 발표 100회 맞아

10월 14일(월) KCCI 공식 발표 100회를 맞이하였다. KCCI는 부산항발 컨테이너 운임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 유일의 운임지수로, 그간 해외에서 발표되는 컨운임 지수들에서는 다루지 않은 한국발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등 인트라 아시아 항로를 도입하여 우리 해운물류 업계와 화주사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한국 주요 물류사 25개사를 패널리스트로 확보하며 운임지수의 신뢰성을 꾸준히 제고하였다. 5월에는 블룸버그 터미널, 9월에는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플랫폼에 KCCI를 등재하며 국내외 지수 접근 및 활용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항만 및 물류산업 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

- 블룸버그(Bloomberg)와 정보 교류 업무협력 체결

5월 22일(수) 블룸버그와 '항만 및 물류산업 정보 교류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력'을 맺었다. 1981년 설립된 블룸버그는 산업 전반의 금융 데이터 기반 분석정보, 거래솔루션, 경제뉴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금융정보기업이다. 양사는 '지표개발(항만 효율화, 경기선행지표 등 공동개발)', '지수등재(한국해양진흥공사의 컨테이너운임지수(KCCI) 블룸버그 등재)', '정보공유(양사 보유 정보 공동 활용)'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2024 BMFW KOBC 마리티타임 컨퍼런스' 블룸버그 세션 편성 등을 협의하며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하였다.



디지털 전환 지원 활동 소개

- 2024년 해양산업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개최

지난해 국내 최초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숙도를 진단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선사 디지털 전환 컨설팅,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IoT스 타트업 연계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디지털 성숙도 진단 대상을 해운선사에서 항만운영사까지 포함해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또한 해운선사 및 항만운영사의 CEO와 실무진들을 초청하여 '2024년 해양산업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 지원 활동들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다.



사업운영본부



사업운영본부에는 프로젝트금융1팀, 프로젝트금융2팀이 속한 해양금융1부, 중견선사 금융1팀과 중견선사금융2팀, 중기상생금융팀이 팀워크를 다지는 해양금융2부가 있으며 인프라금융1팀, 인프라금융2팀이 함께 하는 해양인프라금융부가 있다. 선화주를 위한 금융 프로젝트와 국내외 항만인프라를 담당하는 사업운영본부의 소식을 종합했다.



선화주를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_해양금융1부

국내 완성차 업계 수출 물류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자동차운반선 선주사업 업무협약 체결

공사는 수출 물류난의 근본적 해결책을 위하여 현대글로벌비스에 자동차운반선 4척을 확보 및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대글로벌비스와 '자동차운반선 선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국내 완성차 업계 수출 물류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공동 협력체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본 사업은 공사가 선주로서 LNG D/F 선박, 즉 저탄소 선박 신조 건조를 지원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운반선들은 2027년 건조 완료 후 현대글로벌비스와 장기용선 계약을 통해 국내 자동차 업계 수출 선복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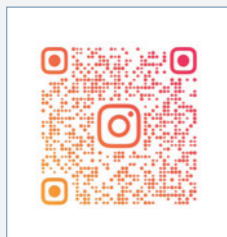
선사의 가장 가까운 힘이 되겠습니다_해양금융2부

공사 지원 하멜호, 본격 운항 시작
- 여수-거문도 초쾌속 신조 여객선 선박금융 지원

7월 5일(금) 신조 여객선 '하멜호'가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하였다. 여수-거문도 구간은 선박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운항 중단으로 도시민의 교통 및 이동권이 훼손된 상황이었으며, 동 항로의 수익성 악화로 선사 자체 신용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여수시의 결손보전을 전제로 한 공사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하멜호가 취항하였다. 하멜호는 승객 정원 최대 423명을 태우고 여수-거문도 구간을 2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최신식 신조 여객선으로, 그동안 불편함을 겪던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함께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멜호 취항식



여수-거문도를 연결하는 하멜호 인스타그램



국내외 항만 인프라금융 투자 관리를 맡겨주세요_해양인프라금융부

부서명	사업명	시행일
해양인프라 금융부 인프라 금융1팀	해진공, 해외 물류 인프라 금융지원 협력을 위해 KIND와 맞손	12.13.

해외 진출 추진을 위한 중견·중소 프로젝트 지원
- 총 2,140억 규모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

11월 22일(금)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가 공식 출범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수출 기업의 생산거점이 다변화되면서 우리 물류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사업 확장에 관한 니즈가 높아졌으나 전략적 물류자산 확보에 대한 과열 경쟁과 높은 금리, 물가 상승, 정보 부족 등이 국내 기업들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해외 진출이 어려웠다. 이에 공사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을 위한 국내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과 과거 유사 지원사례 분석, 주무부처와 협의 등을 기반으로 중견·중소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2,14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를 출시했다.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지원 설명회



펀드 출범식



펀드 투자자산 실사

SEA THE FUTURE



헬레닉쉬핑뉴스

South Korean Shipbuilders Land KRW 2 Tril. in Orders in a Single Day

국내 조선 BIG3, 하루 만에 2조 원 규모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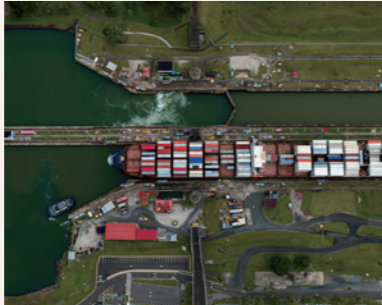
국내 3대 조선사인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지난 10월 2일 공시를 통해 하루 만에 2조 원이 넘는 선박 수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달성한 것으로,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업계 호황 분위기를 보여준다.

한화오션은 한 아시아 선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부유식 저장 및 재기화 설비(LNG-FSRU) 1척 계약으로 5,454억 원, HD한국조선해양은 초대형 메탄올운반선(ULEC) 2척, 액화천연가스(LNG) 병커링선 1척, 액화석유가스(LPG)선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해 8,814억 원,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해 6,783억 원으로 국내 3대 조선사는 총 2조 1,051억 원의 수주 실적을 하루 만에 기록했다.

비즈니스코리아 매체 측은 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선언과 함께 신조선 건조기술 발전으로 친환경 선박 신조 수요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현재 조선 산업은 호황, 부흥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호황에 따른 신조선 가격 상승으로 조선사들의 수익도 개선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조선사들은 굵직한 수주 계약을 꾸준히 따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로이드리스트

Panama Canal ends fiscal year 2024 with 29% plunge in total transits

파나마운하 통항량, 전 회계연도 대비 29% 감소

파나마 운하청(ACP)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3/24 회계연도 기준('23년 10월 1일~'24년 9월 30일), 파나마 운하의 연간 통항량은 9,936건으로 전 회계연도 대비 29% 감소했다.

이는 작년 사상 최악의 가뭄에 기인한 것으로, ACP의 위 발표에 따라 연간 피해 규모가 드러난 것이다.

해운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는 23/24 회계연도 기준 파나마 운하의 네오파나막스 갑문 통항량은 연간 2,852건으로 전 회계연도 대비 21% 감소했다고 전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지난 회계연도 당시보다 통항량이 소폭 늘었으나 LPG 운반선은 17% 감소, LNG 운반선은 무려 66%나 감소했다.

특히, 파나마막스 갑문 통항량은 7,084건으로 전 회계연도 대비 32% 감소하며 네오파나막스 갑문보다 통항량 둔화폭이 크다고 매체 측은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27일, ACP 청장은 통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운송당 화물량 증가와 혼합도에 따른 요금 할증 등으로 운하청이 목표한 23/24 회계연도 순이익 목표치와 거의 일치할 것이라 전한 바 있다고 매체 측은 말했다.



헬레닉쉬핑뉴스

China iron ore imports head for record even as steel output slips

10월 중국 철광석 수입량, 역대 최대치 갱신 예상

선박 추적 및 항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국 철광석 수입량은 최대 1억 2,000만 톤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 측은 전했다. 이는 '24년 9월 중국 세관 수치에 따른 자국 철광석 수입량인 1억 410만 톤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월간 최대치인 '20년 7월 기준 1억 1,270만 톤도 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반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7,707만 톤으로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0.4% 감소했다. 올해 1~9월 누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로이터 통신 측은 이번 9월 데이터로 인해 지난 8월을 기점으로 중국의 조강생산 둔화 현상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확인할 수 있으나, 중국 주요 부양책들의 발표는 9월 말에 대부분 진행되었기에 철강 수요가 급증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이며, 이번 예측치를 기반해 보았을 때 중국 바이어들이 철광석 추가 구매를 서두르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헬레닉쉬핑뉴스

U.S.-Korea Shipbuilding Collaboration Prompts Stock Rally

美-韓 조선 협력 가능성 발언에 국내 조선주 급등

비즈니스코리아 측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조선업계의 협력 소식에 국내 조선업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11월 7일 기준 한화오션 주가는 33,850원으로 마감해 전일 대비 21.76% 상승했으며, HD현대중공업 주가는 27,400원으로 15.13% 상승한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7일 오전,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기인된 것이다. 트럼프 측에서는 한국이 선박 건조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수리, 유지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며, 특히 美 해군 함정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의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비즈니스코리아 매체 측은 HD현대중공업이 '24년 7월 美 해군 보급 시스템 사령부와 선박 정비 계약을 체결해 국내 기업 중 美 해군 MRO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를 기록한 바 있다고 추가로 전했다.



로이드리스트

Trump return injects turbulence into container markets as carriers chase hikes

트럼프 재선, 컨테이너 시장 혼란 가중

해운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는 美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컨테이너 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컨테이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Linerlytica의 최신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컨테이너 시장은 美 대선 결과로 인해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운임이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컨테이너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새로운 관세 부과 정책에 대비하여 향후 수 주 동안 미국 수입품에 대한 선적이 앞당겨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물동량 회복은 12월 말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매체는 트럼프가 홍해 수역을 둘러싼 중동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겠다는 발언은 운임 측면에서 컨테이너 시장뿐만 아니라 해운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초선 당시 이란의 원유 수출 등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했던 입장을 고려했을 때, 홍해 사태 등 글로벌 해운 시장에 남아있는 불확실성들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로이드리스트

China builds share of global newbuilding orderbook to over 70%

中, 올해 1~10월 세계 신조 발주량 70% 이상 차지

해운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생산 능력 개선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며 글로벌 조선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나가고 있다.

해운 중개 업체 Xclusiv는 '24년 1~10월 전 세계 조선 발주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동 기간 63%에서 74%로 증가했으며, 전 세계 컨선 신조 주문량의 71%를 차지하며 전년 수치인 65% 대비 증가했다고 전했다.

Xclusiv 관계자는 중국 조선소의 경우 고부가가치 저탄소 선박에 초점을 맞추며 타사 대비 역량과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韓, 日에 비해 조선 산업 규모가 크고 많은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 신규 발주 수요를 이끌어낸 것이라 말했다.

이어, 매체는 중국 조선소는 올해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 분야에서 특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컨선 주문량의 90%, 벌크선 주문량의 81%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Xclusiv 관계자는 美 트럼프 당선으로 중국산 선박에 대한 강화된 규제와 관세 부과 등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은 가격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중국 조선소를 앞으로 선호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매체 측은 전했다.

해양강국 향한 해진공호에, 첫발을 내딛다

- 2024년 9기 신입사원

2024년,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채용에서 서류와 필기, 1,2차 면접전형을 거쳐 지난 2024년 10월 31일, 총 10명의 신입사원이 신규로 임용되었다. 신입사원들은 3개월간 수습 근무 후 심사 절차를 거쳐 각자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이제 막 해진공호에 합류한 10명의 신입사원을 만나보자.

공통 질문

1. 자기소개 2. 지킴이 업무 가치 3. 지금 주목하는 해양 이슈 4. 이루고픈 꿈과 목표 5. 선배님들께 한 말씀

배려왕 창욱 강창욱

- 연수 중 사소한 배려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동기들에게서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배려심을 잃지 않고, 조직 내에서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 '발전'이라는 가치. 공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양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금융 지식이 필요합니다. 업무를 배우고 지식을 확장하며 성장하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 해양 쓰레기 문제. 해양오염은 단순 플라스틱 폐기물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직접 정화 활동에 참여하며 더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원만한 직원으로 성장하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책임감과 상호소통으로 원만한 자세를 유지하고 싶어요.
-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선배님을 뵈면서 선배님들께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신뢰받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맛집 콜렉터 김동훈

- 평소 맛있는 음식을 찾다니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맛집을 추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맛집 발굴 능력을 발판 삼아 선배님들과도 한층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 단순 반복 업무를 맡더라도, 목적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해양 인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해양문화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해양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여, 미래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잘 맛있게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찾고, '이 일은 김동훈을 찾아가야 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해당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 입사 후 여러 경로로 마주했던 해진공 선배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직장 생활에 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전 에프피 김유정



- 평소 활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지만,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해 보인다고 합니다. ENFP다운 밝은 에너지와 때로는 진지한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조직과 개인의 성장. 주어진 업무를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여러 업무를 경험하면서 저만의 커리어와 방향성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지정학적 리스크와 친환경 전환,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친환경 전환과 같은 장기적인 과제와 단기적인 금융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공사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 공사가 사업 범위를 확장한 만큼, 저도 역량을 쌓아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공사 신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동료 여러분!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멋진 결과 만들어가요!

선한 영향력 석현빈



- 평소 지인들로부터 선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공사에서도 저의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 '전문성 개발'을 소홀히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배님들과 대화하며 공사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전문성 개발에 힘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트럼프 1기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등의 정책으로 인해 교역 패턴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근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해운업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 '1인분 하는 동료' 되기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공사에 기여하는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 몫을 온전히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애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서 매일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른 적응해서 업무적으로, 관계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동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귀했습니다 송지섭



- '23년 8월부터 1년간 정책지원팀에서 근무했고, 당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서 꼭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사하여 보답할 기회가 생겨 기쁩니다.
- 책임감. 어렵고 난감한 순간에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해 업무를 파악하고, 능숙하게 처리하고 싶어요. 책임감과 역량을 모두 갖춘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 IMO의 환경 규제. 정책지원팀에 근무할 당시 BWMS, 스크러버 등 친환경 설비를 지원하는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해운업계의 친환경 전환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 같이 일하기 좋은 직원 되기. 원만하게 소통과 협력을 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잘 해내는 책임감 있는 직원이 되고 싶어요! 겸손하고 센스있는 직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다시 돌아왔을 때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함께할 동료분들께 힘이 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몰톡 장인 윤현정



1. MBTI 검사결과 E 100%가 나온, 소통을 좋아하는 스몰톡 장인입니다. 저의 성향을 살려 9기 오락부장(!)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업무 소통도 잘 해내는 소통 장인이 되겠습니다!
2. 일에 관한 책임을 항상 인지하여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공사가 추구하는 방향을 알고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주체적인 일원이 되겠습니다.
3.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영향. 향후 미국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 기업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한 관심으로 최신 뉴스를 모니터링하려고 합니다.
4. 커리어와 가정, 두 가지 측면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출근해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퇴근하면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하는 멋진 직장인을 늘 꿈꿨습니다.
5. 늘 즐겁거나 좋을 순 없겠지만, 선배님들께 환대를 받으며 느꼈던 감사함과 책임감을 항상 마음에 지니고 지금의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인사장인러 이경민



1. 밝은 인사는 저와 상대방 모두에게 좋은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진공의 '인사장인러'가 되어 부드러운 분위기를 끌어내는 신입직원이 되겠습니다!
2.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되, 실수를 빠르게 줄여나가며 업무에 열린 적응하여 일을 잘 해내는 신입직원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3. IMO2050 친환경 규제 강화 속 탄소 중립 실현. 기존 선박의 친환경 전환에는 대체연료 외 어떤 방법이 있는지, 특히 자금이 부족한 중소선사들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해진공의 '윤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WHY, HOW, WHAT'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5. 능력 있는 선배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잘'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점심 제안 주시면 기쁘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이승찬



1. 공사에 입사하여 매일 '행복한 사람'이 된 이승찬입니다. 제 강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취미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기입니다. MBTI는 INFJ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2.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소하고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일에도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중소선사 특별지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해운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형선사뿐만 아니라 중소선사도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해양금융전문가가 되기 위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어학습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배에게 성심성의껏 가르치며 보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시야를 넓히고, 운동도 꾸준히 해 체력도 기르고 싶습니다.
5. 처음에는 낯가림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제 진심은 언제나 모두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배님,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트래킹 러버 최수빈



1. 어린 시절부터 뛰는 것을 좋아해 육상선수를 했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칩니다. 바빠도 꾸준히 트래킹을 하는데, 공사 덕분에 부산에서 매일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해요!
2. '사소한 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 작은 일도 소홀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로 성장하여 공사 발전에 힘쓰고 싶어요.
3. 해양오염 문제. KOBC 바다 사랑 봉사대 활동을 하며, 깨끗해 보였던 해안에서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쉽게 버려진 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4.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열린 자세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싶어요.
5. 입사한 첫날부터 늘 웃음으로 마주해주시고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이바지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아, 가보자고 최지현



1. '아, 가보자고'는 저를 표현하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나 상황이 닥치더라도, '일단 가보자고'라는 마인드만 있다면 주저함 없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게 됩니다.
2. '함께'라는 가치. '나 혼자'라는 마음은 내려놓고, 선배와 동료들에게 항상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업무적, 개인적으로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3. '트럼프 쇼크'로 인한 국제물류망 재편 이슈로 항만 인프라와 물류거점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진공의 역할이 트럼프 2기에서 더욱 중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앞으로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여, 10년 뒤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대표하는 한 명의 직원으로서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애정을 다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5. 해진공의 일원이 되어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밝고, 적극적인 자세로 인사드리는 막내 사원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지역도 지갑도 살리는 상생협약, 혜택받으러 가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2024년 해진공은 임직원의 비금전적 복지(별도의 예산지출을 하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 업체의 홍보를 돕는 상생협약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공사는 협약을 맺은 업체에 명함 거치 홍보판넬, 홍보스티커 등 운영에 도움이 되는 홍보 물품을 지급하고, 협약업체는 공사 임직원과 가족 등이 업체를 이용하면 공사 전용 혜택을 제공한다.

상생협약 업체는 총 31곳으로 식당과 병원, 숙박, 법무·교육 등 업종이 다양하다. 아래 지도를 참고하여, 원하는 혜택을 찾아 상생협약 업체를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부산 이외 지역

라마다 호텔앤스위트 남대문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27

신라스테이 역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17

신라스테이 서초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27

신라스테이 삼성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06

거제삼성호텔 | 경남 거제시 장평3로 80-37

SL호텔 강릉 |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59

공사 특별할인가(업체별 상이)

10% 할인

고반식당 동래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34

변호사 상담료 1회 무료, 2회 50%,
변호사 보수·수수료 20%

법무법인 나침반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 1305호

세무상담료 20%,
세무신고·조세불복·조사수임
20~30% 할인

세무회계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8, 219호

10% 할인

고반식당 수영센터점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9번길 133

10% 할인

사마정 광안직영점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147, 2층

10% 할인

고반식당 민락수변공원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344번길 17-22, 2층 201호

외래진료 10%, 건강검진 20%,
용품 10% 할인

W동물의료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옹호로 68

공사 특별할인가(업체별 상이)

부산관광호텔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97번길 23



이모저모 해진공



한국해양진흥공사, 제3대 안병길 사장 취임

공사는 10월 2일(수) 부산시 해운대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안병길 前 국회의원을 제3대 사장으로 맞으며, 공사 3기 출범을 알렸습니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며, 정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신임사장은 진주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를 거쳐 동아대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간의 경력으로 부산일보 편집국장, 대표이사를 거쳐 제21대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 등을 역임했습니다. 해양업계에서는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 해양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양산업의 주요 현안들을 원활하게 풀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1억 스위스프랑 규모 공모채권 발행 성공

공사는 10월 1일(화)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 스위스프랑(달러 약 1.2억 불) 규모의 4년 만기 채권을 0.95% 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위스프랑 채권은 공사가 발행한 기존 달러화 채권 외 이종통화로는 최초 발행한 공모채권입니다. 4년 만기 고정금리채로 Coupon 금리는 0.985%입니다. 이는 '21년 6월 KDB의 스위스프랑 발행 채권 이후 발행한 한국물 중 가장 낮은 발행금리이며, 올해 발행한 한국물 채권의 가산금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확보된 자금은 통화스왑을 통해 미 달러화로 활용할 계획이며,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대 확보, 항만-물류시설 투자 등의 우리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물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첫삽'

10월 10일(목) 공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엘우드 지역에 위치한 CJ대한통운의 북미 거점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합작 프로젝트의 첫 번째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엘우드 물류센터는 부지면적 295,389㎡, 연면적 102,775㎡ 규모로 조성되며,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최신 운영 시스템 및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향후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거점 물류 공급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는 CJ대한통운과 함께 일리노이주 데스 플레인스 지역과, 뉴저지주 시카커스 지역에 추가로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수출입 물류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 대상 'KOBC와 함께하는 친환경 해양산업 학습교실, 진행

11월 4일(월) 공사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지역아동센터에서 'KOBC와 함께하는 친환경 해양산업 학습교실'을 진행하고, 2천만 원 상당의 '희망 더(+)'해 친환경 학습 키트'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부산지역 아동 20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역아동의 해양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 등 해양 지식 습득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 친환경 학습 키트 기부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학습 키트에는 학용품과 함께 친환경 기업의 폐어망-페 PET를 가공한 업사이클링 가방이 포함되어 환경교육과 지역아동 학습 지원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펀드 출범

공사는 11월 12일(화)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BNK부산은행, 삼성SRA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과 함께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펀드 출범식 및 투자자 간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개최했습니다. 본 펀드는 총 2,130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 형태로 조성됐으며, 공사와 BNK부산은행이 투자자로, 삼성SRA자산운용과 캡스톤자산운용이 투자집행 및 펀드 운용으로 참여합니다. 주요 투자 대상은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해외 거점지역 내 물류·공급망 자산으로 건 별 500억 원 규모 이하 중소형 규모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선과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1월 15일(금) 공사는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선과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KOBC 바다사랑 봉사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연안 정화 활동 및 캠페인 확대를 위한 오선의 자원 공유,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안 정화 활동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협약식 후, 해진공-오선-SH수협 은행 공동으로 부산시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인식 개선을 위한 '열일 캠페인'과 연안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공사는 해양산업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써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류재형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선임

공사는 11월 25일(월) 류재형 前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류재형 본부장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해양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약 31년 동안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외교부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참사관, 해양정책관, 감사관, 국립해양조사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해양업계에서는 해양산업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 해양산업의 현안들을 원활하게 풀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 "Green Sailing" 실시

공사는 12월 2일(월)부터 내년 1월 31일(금)까지, 친환경 선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주요 항만의 선박 매년 심각성에 착안해 친환경 항해의 가치를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직접 제작한 보드게임을 활용합니다. 게임에서 참가자는 전 세계를 항해하며 각종 친환경 설비를 획득, 이를 활용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야 합니다. 보드게임은 12월 2일부터 주요 보드게임 동호회 등을 통해 배포되며, 온라인 버전은 해당 기간 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친환경 선박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보호에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2024 해양산업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개최

12월 12일(목) 공사는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에서 '2024 해양산업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숙도를 진단하고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협의체 구성-운영, IoT 스타트업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날 특별강연은 'AI 시대 산업변화와 해운-항만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빅데이터연구센터 소장을 맡은 경희대 이경전 교수와,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전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삼성SDS 오구일 부사장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공사는 우리나라 해운-항만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어린이 해양산업 문화학습 공간 '해양 Dream Dock, 1호점 개소

12월 2일(월) 공사는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 아동 해양산업-문화 학습 공간 '해양 Dream Dock' 1호점을 개소했습니다. 선박을 건조하는 공간인 Dock(도크)에서 착안하여 세계를 누비는 선박을 만들고 바다로 내보내는 도크처럼 해양에 대한 꿈을 만드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해양 Dream Dock'은 문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지역아동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생계적 지원을 넘어 지식을 전달하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공사는 인프라 조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양산업과 지역 동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진공 낱말퀴즈

우리나라 해양도시와 산업, 기업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은 이번 <비타민 SEA> 어떠셨나요? 페이지에 숨은 답을 찾아보세요.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연	혁	신	거	점	자
결	해	입	소	통	성
성	양	사	바	다	대
전	환	원	부	혜	택
상	생	협	약	산	책
금	용	물	류	북	항

- 1 ●●●● 은 국내 컨테이너 화물 76.8%, 전국 환적화물 97.4%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처리하는 단연 국내 1위 항만이며, 세계 2위 한 적항만입니다. ●●●●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 **힌트 p.8**
- 2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24년 임직원의 비금전적 복지(별도의 예산지출을 하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 업체의 홍보를 돕는 ●●●●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 **힌트 p.34**
- 3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 아동 해양산업·문화 학습 공간 '●●● Dream Dock' 1호점을 개소했습니다. 선박을 만들고 바다로 내보내는 도크처럼 해양에 대한 꿈을 만드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 **힌트 p.37**

독자 설문 조사

- 1 <비타민 SEA>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더 좋은 소식을 위해 <비타민 SEA>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벤트 참여 방법

구글 설문 링크(QR)로 접속하여 문제의 답과 독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참여 기간: 2025년 2월 28일까지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분께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당첨자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활용 후 즉시 폐기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준수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실천수칙



<p>01</p>  <p>필수정보만 최소한, 추가 정보는 동의 필수</p>	<p>02</p>  <p>민감 정보 처리금지 -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p>	<p>03</p>  <p>다른 용도의 사용이나 제3자 제공금지</p>
<p>04</p>  <p>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p>	<p>05</p>  <p>안전성 확보 조치 필수</p>	<p>06</p>  <p>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p>
<p>07</p>  <p>정보 이용 후 반드시 파기</p>	<p>08</p>  <p>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통보</p>	<p>09</p>  <p>CCTV 운영 시 안내판 설치</p>

